

“파도가 무서워 배를 포기할 정도”

대정·안덕·강정·남원 등 서귀포지역 포구 피해 집중 일부 농경지선 침수 발생 감귤 낙과·하우스 파손 적어



6일 장흥 대평선주회 회장이 태풍 피해를 막아준 석축을 가리키고 있다. 백극탁기자

“60평생 이렇게 큰 파도는 처음봤다. 배를 타는 사람인데도 파도가 얼마나 큰지 포구에서 배를 지키는 것도 무서워 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을 갈 정도였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6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만난 장흥(66) 대평선주회 회장은 지난밤의 ‘악몽’을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고비였던 어젯밤(5일) 9~10시쯤에 가장 바람이 세고 파도도 높았는데, 파도가 도로 위까지 올라와 어선주사무실 앞에 정박했던 배가 줄이 끊기며 사무실을 덮쳤다”며 “사무실 유리창이 깨지고 냉동기 실외기도 파손돼 당장 미끼를 어떻게 보관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피해 복구작업 중이던 박인동(55) 안덕자율방재단 부단장은 “월파 피해는 심했으나,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 등에 대한 피해가 덜한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평포구 인근의 예래해안도로는 그야말로 축대밭을 연상케했다. 해안가에 있던 자갈과 돌덩이들이 파도에 밀려 도로를 덮쳤고, 해안 도로를 따라 조성한 화단도 모두 파손돼 흙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들도 많아 앞으로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이번 힌남노의 영향으로 서귀포지역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월파 피해가 컸다.

대정읍 일과리~신도2리 해안도로 5km 구간에는 파도에 밀려온 바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영락리 해녀탈이장이 파손됐고, 도로 곳곳에도 사람의 손으로 치울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의 바위들이 올라

와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됐다. 강정항 내 도로 20m가량이 파손됐고, 어선 1척도 전복돼 인양됐다. 또한 서귀항 주차장에도 크고 작은 돌들이 밀려왔고, 남원읍 해안도로 파손 및 태흥리 파재벽이 밀리는 피해도 발생했다.

이날 중산간과 해안면 일대 밭에는 침수 피해가 있었으나, 다른 곳은 감귤 낙과나 하우스시설물 파손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위력만큼 태풍의 세기가 크기 않아 피해가 적은 것 같다”며 “오는 10일까지 피해 집수를 받아봐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고, 현재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극탁기자

꽃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귀추’

위킹그룹 최근 10차 운영회의 조례 등 논의 주민설명회 거쳐 제주도의회 동의 얻어야

막바지에 접어든 제주 꽃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절차가 연내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제10차 꽃자왈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위킹그룹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꽃자왈 지대 실태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추진 방향과 꽃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 꽃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

리방안 운영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이후 꽃자왈 보호구역 내 사유지 포함 여부로 주민 반발이 잇따르며 7년 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용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인 ‘꽃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민 열람이 이뤄졌지만 반발이 잇따르며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고, 결국 해를 넘겨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역 확정 내용의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꽃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초안을 내놴다.

지난 1일 열린 위킹그룹 회의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특별회계 설치 조문을 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주민설명회는 읍면 별이 아닌 꽃자왈이 포함된 해당 46개 마을 별로 실시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설명회는 행정과 위킹그룹이 함께 참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꽃자왈 지대 지정·고시 절차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도의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2022 제주애 빠지다 14 뮤지션 준비

노래·기타로 주민과 소통하며 호흡하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자리한 ‘브로컬리(Be locally)연구소’.

지역 청년간 소통과 연대 지속, 문화자급자족을 위해 탄생한 청년 커뮤니티 작당소이다. 농사를 비롯해 음악·영상·사진 등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작가들이 모여 여러가지 행사나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 통기타 모임이 진행된다. 뮤지션 준리(39)가 노래와 기타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는 미국 LA에 있는 실용음악대학 MI (Musicians Institute) 출신이다. MI는 미국 버클리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와 함께 미국 실용음악대학의 양대산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 실용음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진학을 꿈꾸는 곳이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가수였고 어머니가 작사가여서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다.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고등학교때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부터인데 고교 졸업 후에 실용음악학교에서 기타를 전공했지만 중퇴를 했다. 혼자서 곡을 만들고 통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제 스타일과 당시엔 딱히 맞지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1995년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2010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에서 살다가 2012년말에 제주도로 내려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에 정착했다.

준리는 최근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쓴 자작곡 ‘Lion's Kingdom’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 먹어 결국에는 굶어서 죽는다’는 내용으로 전쟁의 참상을 일깨워 주는 노래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브로컬리 연구소’를 운영하며 노래와 기타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뮤지션 준리.

미국 LA 실용음악대학(MI) 출신 인재 이라크 전쟁 ‘Lion's Kingdom’ 주목 남원 ‘브로컬리연구소’서 음악으로 교감

브루스락과 포크락을 좋아하는 그는 그가 고교시절에 통기타의 선율에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낸 곡이다.

그의 긴 머리와 의상에는 자유분방함이 묻어 있다. “저는 사실 락음악을 사랑하는데 음악이라 하면 크게 가리지 않고 좋아하고 살았다. 하지만 포크 음악은 어린시절부터 많이 접하고 친숙한 만큼 자연스럽게 저에게 녹아들 감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도시에서 음악 활동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는 왜 제주에 정착했을까?

“제주에 정착하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놀러 왔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이곳으로 내려오게 됐다. 초창기에 장사를 했는데 2019년에 가게를 정리했다. 지금은 노래와 기타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주살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졌다. “공기가 서울이나 다른도시에 비해서 정말 좋다. 여기에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하니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사는것 같다. 불편한 점이라면 제주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그리 불편은 없다”고 했다.

제주살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조언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주살이를 포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도시생활에 지치고 제주도가 와서 보면 일이 전만큼 되지 않아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예전과 비슷한 직장을 찾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와야 한다.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와야 한다”고 했다. 고대모기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라면 어디든 찾아가 상담해드립니다!

- 대상 : 여성, 위기청소년, 대학생, 장애인, 사업장 근로자
- 제주 전 지역 방문 상담
- 등록 후 6개월간 1:1 맞춤형 상담과 보조제 무료 제공
- 금연 포상금 제공
- 신청 : 010-8814-903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카카오톡 : jejutcc

올해는 꼭!
금연성공(9030)

4박5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가자 생시모집 (무료)

□ 대상
-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2회 이상의 금연 실패 경험자
- 흡연관련 질병(비흡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만성비염 등) 진단 후 흡연 지속자

□ 일정
매달 1~2회, 상기 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시모집입니다.

□ 캠프특전

- 흡연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폐CT 포함)
- 금연약물요법(니코틴패치, 껌, 경구용 약물 등) 제공
- 생활한복,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 제공
- 전문적 금연치료와 유지를 위한 집중심리상담 제공
- 금연 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주시 서사로 184, 4층 제주금연지원센터
- 전화: 064-758-9030/010-3068-9030
- 회기당 선착순 8명 제한입니다.
- 접수 시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캠프 수료 후 전액 반환됩니다.
- 코로나19 사전 검사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일정표

| 전문치료형 | 1일차(수) | 2일차(목) | 3일차(금) | 4일차(토) | 5일차(일) |
|-------------|------------------------|------------------------|------------------|------------------------|-----------------|
| 08:00-09:00 | | 조식/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 조식/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 조식/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 조식/바이탈 체크 |
| 09:00-10:00 | | 금연의 이해 | 금연의 이해 | 금연의 이해 | 사후 심리검사, 만족도 조사 |
| 10:00-11:00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건강한 음주생활 | 솔체험 (점물자연휴양림) | 집단상담Ⅳ | 수료식 |
| 11:00-12:00 | | 중식 | 중식 | 중식 | |
| 12:00-13:00 | | 중식 | 중식 | 중식 | |
| 13:00-14:00 | 건강검진 & 심리평가 간호실/ 임상심리팀 | 체형조절과 운동처방 | 개인상담 | 스트레칭 및 세로토닌 산책 (종횡경계장) | |
| 14:00-15:00 | | 개별영양평가, 영양교육, 영양간식 영양팀 | 휴식 및 답소 | 금연관련 영상시청(술 vs 담배(1부)) | 제주 금연지원센터 |
| 15:00-16:00 | 폐 CT촬영 (한국병원) | 스트레칭과 운동처방 | 스트레칭과 운동처방 | 일상생활관리 | |
| 16:00-17:00 |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 | | | |
| 17:00-18:00 | 흡연의 약영향 | | | | |
| 18:00-19:00 | 석식 및 휴식 | 석식 및 휴식 | 석식 및 휴식 | 석식 및 휴식 | |
| 19:00-20:00 | 집단상담 I | 집단상담 II | 집단상담 III | 사후 관리 안내 및 보조제 처방 | |
| 20:00- | 개인 자율 및 취침 | | | | |

* 프로그램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연카드 무료신청 QR코드

담배 끊는 확실한 방법

보건복지부 · 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제주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010-8814-9030
금연캠프 010-3068-9030